

## 아크릴 섬유산업

### - 판매 및 수출에의 기여(2) -

#### 4. 도약기

1982년도의 출하량은 150,623톤으로 전년보다 약 1,000톤이 증가하여 거의 보합세를 보였는데, 이 중 내수는 27,666톤, 방적사 직수출이 48,467톤, 로컬량이 74,490톤으로써 방적사의 직수출이 증가된 반면에 로컬량은 2,000톤 정도가 감소하였다.

1982년 상반기에는 내수 시장의 수요가 월 2,000톤 전후의 수준으로써 부진한 상태이었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아크릴섬유의 내수시장은 활기를 되찾았는데, 이것은 계절적인 성수기를 맞은데다 교복자율화에 따른 학생용 스웨터 수요에 대비한 출하 증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방적사의 직수출 물량은 전년대비 5.3%가 늘어났으며, 관세청 통관기준 지역별 수출실적을 보면, 일본, 홍콩, 독일을 중심으로 저년보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컬량은 전년비 2.4%의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1/4분기 및 2/4분기에는 비교적 호조를 보여 상반기에는 39,559톤이 출하되어, 저년 동기대비 4.9%의 증가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크게 감소되어 저년 동기대비 9.6%의 감소로 인하여 전체로 볼 때, 로컬량은 전년 수준을 하회하였고, 수출 의존도가 큰 동업계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시기였다.

1983년도의 출하량은 147,575톤(전년대비 2.0%감소)으로 상반기에는 수출이 활기를 보여 월 10,000~12,000톤대의 수요가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월 9,000톤대로 떨어졌다. 따라서 총 수출 물량은 116,469톤으로 전년도 122,957톤에 비해 약 7,000톤이 줄어들었고, 내수량은 31,106톤으로 저년보다 4,000톤이 늘어났으나 업계에 큰 활력을 주지는 못하였다.

1984년도에 들어서면서 동업계는 다소 회복세를 보였는데, 내수 및 수출시장에

서 크게 호전되어 연간 출하량은 168,993톤으로 전년대비 14.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내수는 이상 한파와 교복 자율화 등으로 스웨터 및 캐주얼용 수요가 증가되어 43,766톤으로 저년보다 약 12,000톤이나 늘어났으며, 수출은 모포류, 방적사 및 스웨터의 대미수출의 호조와 완규류(파일직물)의 수출증가, 이란지역의 특수 등으로 전년대비 약 10,000톤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대미 퀴터 소진과 함께 수출시장인 구미지역의 수요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업계의 경기전망을 불투명하게 하였다.

1985년도 출하량은 전년대비 비슷한 상태를 나타내었으며 출하 형태별로 보면 내수가 38,126톤으로 전년대비 13%감소 되는데 반해 수출은 직수출이 51,860톤으로 2.1%, 로컬용이 79,111톤으로 6.2% 증가되어 총수출은 130,970톤으로 전년대비 4.6%가 증가하였다.

연중동향을 보면 내수의 경우 상반기에는 월평균 2,970톤, 하반기에는 3,400톤 정도씩 출하되었는데 하반기에 활기를 보인 것은 스웨터, 니트 웨어 등 캐주얼용과 카페트 수요증가에 힘입은 것이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수준을 하회하는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수출의 경우 직수출은 방적사로써 월평균 4,320톤 수준이었는데 연초에는 최고 5,200톤에까지 이르렀었다. 로컬용 수요는 월평균 6,600톤 수준으로 상반기에 활황을 보였는데 이것은 모포, 스웨터, 완규류(파일직물) 등 주종품이 구미시장에서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며 하반기에는 대미 퀴터 소진과 함께 수출이 격감됨에 따라 로컬용 수요도 함께 감소되었다.

1985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화라는 3저현상과 대외여건의 호조로 인하여 1986년도의 출하량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된 174,811톤을 나타내었다. 내수가 29,798톤으로 전년대비 28%나 감소되었고 직수출은 다소 감소한 45,953톤을 나타내었지만 로컬 물량은 왕성한 제품 수출수요와 함께 크게 증가하여 99,060톤을 나타냄으로써 전년대비 25%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출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재고 상황은 전년에 18,768톤이던 것이 1986년 말에는 8,901톤으로 크게 감소된 실적을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아크릴방적사의 경우 스웨터 수출의 호조로 원사 부족으로 인한 파동

이 있었고 또 이 파동이 연중 계속되었으므로 아크릴 생산업체로서는 성장의 이익을 누릴 수 있었으며 채산성이나 몰량면에서도 성과가 컸다. 완구의 수출신장이 계속되었고 파일업계의 수요증가도 컸으며 모포, 직물, 니트, 양말부문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편직기의 자동화가 진전됨에 따라 원사 수요량이 크게 확대되었다. 연중 출하 동향을 보면 내수의 경우 상반기에는 월평균 2,304톤, 하반기에는 2,662톤씩 출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의 경우, 직수출은 방적사로 월평균 3,829톤이었고 로컬수출물량은 월평균 8,255톤을 나타내어 왕성한 원사수요를 대변하였다. 또한 아크릴방적사의 수입자유화 추진계획상 당초에 1986년 7월로 자유화가 예정되었던 것이 국산 공급부족으로 실수요 업계가 방적사의 구득난을 겪게 됨에 따라 1986년 4월로 그 시기를 앞당기게 되었는데 그 결과 수입물량도 종전의 연간 5,000톤 수준이었던 것이 1986년에는 약 2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폴리에스터 업계와 달리 아크릴업계는 세계적으로 보아 신, 증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원사공급을 대폭 확대시킬 수 없는 실정이었다.

1987년도의 출하량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175,790톤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실적은 정치적인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전 산업계로 파급된 노사분규와 수재로 인하여 공급 측면에서 상당한 물량의 생산 차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00여 톤이 증산되었는데 이는 스웨터, 완구류의 경기가 최상의 시황을 보임에 따라 출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출하 형태별로는 내수가 31,445톤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고, 직수출은 42,929톤으로 전년실적 45,953톤보다 감소한 반면, 로컬물량은 1986년에 이어 업계 활황으로 101,416톤을 기록하였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연초부터 계속된 아크릴 몰량 부족이 로컬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날로 심각해짐으로써 유통 혼란 양상마저 나타나자 직수출을 전년도 실적의 60%로 1987년 6월부터 제한하기도 하였다. 태광의 증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아크릴 성수기에 들어서자 몰량 부족감이 더욱 팽배하여져 수입물량이 크게 늘어났는데 1986년 26,722톤에서 1987년에는 49,382톤이 수입되어 전년대비 무려 84.8%가 늘어났고, 방적사는 1987년에는 14,783톤이 수입되어

전년 실적 11,043톤보다 33.9%가 신장될 정도로 수입수요가 왕성하였다.

그러나 3/4분기에 들어 아크릴방적사의 주시장인 EC 및 북미지역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아크릴을 소재로 하는 국제 수요가 하락 경향을 나타내자 동 품목의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직수출 시장 역시 수출제한 조치로 말미암아 직수출 거래는 관리상의 문제가 야기되어 거래선을 후발 신흥 섬유국에 잠식 당하였으며 경쟁국인 대만이 세계 시장변화에 따라 파운드당 20센트를 인하하는 등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나옴에 따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아크릴섬유의 경기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시장이 그 동안의 판매부진과 섬유패턴의 변화 즉, 천연섬유 선호경향이 전개되어, 아크릴섬유 전체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스웨터의 소재와 패턴이 넓고 풍성한 사이즈에서 기본패턴으로 바뀜에 따라 방적사 수요가 크게 위축되기도 하였다.

## 5. 기술 전환기

1988년은 1987년보다 공급측면에서 10,000여 톤이 늘어났으나 전년과 달리 로컬물량이 전년수준이 머무는 등 방적사 수요가 확대되지 못하여 재고가 누적되는 가운데 출하량은 186,120톤으로 전년보다 물량면에서 10,330톤이 늘어나는 미미한 성장에 머물렀다. 출하별 내용을 살펴보면 내수가 저년 실적 31,445톤보다 23.3%나 크게 신장되었으나 동 분야가 출하에서 차지하는 몫이 20.8%보다 작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기에는 역시 무리였다.

아크릴섬유의 경기가 크게 식었다는 점은 로컬분 물량(98,988톤)이 전년보다 오히려 2,418톤이 줄어든 것과 수입물량이 50% 감소된 것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는 아크릴 스테이플 전체 수요의 45% 정도를 점하고 있는 스웨터와 25% 정도를 점하고 있는 봉제 완구업체가 급격히 전개되고 있는 원화절상을 비롯한 이른바 3고현상으로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이미 일부업체가 조업단축 등 비상체제로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국산 제품의 가격 앙등으로 바이어들이 수입선을

옴기는 등 방적사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었다.

방적사 수요의 관건을 쥐고 있는 구미 선진제국의 섬유경기도 침체의 기로에서 헤어나지 못하였고, 스웨터 분야 또는 패션 경향이 스몰사이즈(small size)화 되어 아크릴 스테이플 업계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로컬분야의 방적사 수요가 줄어들자 업계는 스테이플의 직수출 물량을 늘림에 따라 전년 실적보다 5,400여톤 늘어난 48,363톤을 기록하였다.

직수출이 전년보다 약 12.7% 늘어났지만 구미제국의 아크릴 스테이플 메이커들이 시황이 변함에 따라 아시아 및 중국에 덤핑 수출을 하기도 하였고,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대만의 방적사 오퍼가격이 종전의 파운드당 1.80달러에서 1.15달러까지 하락하는 투매현상까지 나타나 가뜩이나 어려운 동업계에 큰 짐이 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아크릴 스테이플의 생산량이 1988년의 190,917톤을 기점으로 1989년에 189,656톤, 1990년에 184,333톤, 1991년에 182,832톤으로 3년 연속해서 감소되는 보기 드문 기록을 보였다.

이는 1989년에 미국이 한국산을 비롯하여 홍콩, 대만산 스웨터의 대미수출 가격이 덤핑이라고 제소한 것을 계기로 스웨터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1990년 마침내 확정 발표된 덤핑 마진율이 우리 나라가 가장 낮고 대만, 홍콩이 가장 높아 앞으로 우리의 수출이 다시 활기를 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도 하였으나 스웨터를 생산하던 인력이 이미 다른 업종으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과거의 수준으로 되살릴 방도가 없었던 것이었다.

또한 스웨터업계도 많은 업체가 이미 사업을 정리하여 버렸고 일부업체는 동남아 등지로 이전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아크릴섬유의 로컬 수출량은 감소한 반면에 직수출(스테이플 수출 및 방적사 수출)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로컬수출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수출을 늘렸다는 점도 이유가 되지만 그보다도 한국, 대만, 홍콩의 스웨터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 사이에 동남아국가들이 그 덕을 보았을 뿐 아니라 한국, 대만, 홍콩의 스웨터업체가 동남아국가로 이전하거나 현지 업체와 합작관계를 맺으면서 이들에게 공급될 원자재로써 스테이플 및 방적사의

수출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현상의 결과는 특히 1991년 상반기에 생산, 내수, 수출통계에 아주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생산량은 3년 째 제자리 걸음이거나 줄어들었고, 직수출은 특히 1991년 상반기에 대폭 늘어나고 있으나, 로컬 수출은 1991년 상반기부터 줄어들고 있어 성장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든다.

그러나 스웨터업체뿐만 아니라 아크릴방적사 생산설비도 동남아국가로 이전하거나 현지 기업의 증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아크릴 스테이플의 수출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